**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0강,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 성경과 이혼에 대한 추가 설명, 고린도전서 7장**© 2024 게리 미도어스와 테드 힐드브랜트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고린도전서 7장,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성경과 이혼에 대한 여담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과 관련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는 그 장의 본문과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제가 말하는 여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방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보관해 둔 책으로 된 큰 섹션을 제 뒤에 두고 있습니다.

제 도서관 대부분은 사실 텍사스 휴스턴의 Lanier, LANIER, Lanier 신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가 은퇴했을 때, 제 도서관의 5,000권 이상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제 집에는 제가 하는 일 중 일부를 지탱할 만큼만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담입니다. 저는 단지 개요를 제공하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석의 역사를 조금 알려드려서 사역 전문가로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다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역에서 이것은 사역 리더가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아담이 창조된 창세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흥미로운 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토끼 부부, 코끼리 부부, 이것저것 부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이브를 자신으로부터 주셨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은 성경, 특히 구약성서에서 친족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면에서 법전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신명기에서 이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두 개의 물리적 실체가 하나의 물리적 실체가 된다는 의미로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족 관계의 개념에 대한 은유입니다.

결혼하면 친척이 됩니다. 그리고 친척이 되는 그 측면은 결혼 상황에서 정액이 섞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결혼은 관계에 대한 창조된 욕구에 대한 답으로 제시됩니다.

창세기의 기록도 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이브 없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에는 남성과 여성,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땅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기대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된 패턴입니다. 셋째, 결혼은 창세기의 문화적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돌보라.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두 가지 명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의 문화적 명령으로, 인간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더 큰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명이 있는데, 구약에는 없지만 복음서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명에 비추어 보면 문화적 사명은 종종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그 문화적 명령의 일부입니다. 넷째, 성 관계의 신성함은 성경 전체에 걸쳐 철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의 10번째 노트 팩에 있는 노트의 9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성 관계의 신성함은 성경 전체에 걸쳐 철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텍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된 섹스는 번식을 달성하지만, 그것이 달성하는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섹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아이들은 축복이자 그 관계의 산물이지만, 그 관계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Fitzmeyer는 그의 논평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학자이고, 거기에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출산이라는 개념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으로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섹스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플라톤적 부정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성적 충동의 자기 만족은 종종 관계적 외로움의 우산 아래에 숨겨진 의도이며, 의사 결정의 주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문화는 섹스에 열광하고, 결과적으로 결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섹스와 개인의 신체적 매력에 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성적 욕망은 창조된 범주이며, 그것은 영원히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의 관점에서 인간의 일부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성적 충동을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모든 창조물, 인간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주요한 관계적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남편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구약과 신약 모두의 가정 규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주요 범주입니다.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창조, 번식, 등등의 전체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창세기에도 기록된 타락은 이 전체 영역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이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본문을 여기에 제시했고, 당연히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다루는 다양한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모든 텍스트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곧 보게 될 신약성경에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NIV 2011, 만약 어떤 남자가 그에게 불쾌감을 주는 여자와 결혼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판례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서 음란한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이 불쌍한 사람이 관리해야 했던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의 집에서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집을 떠난 후에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그녀를 싫어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를 그의 집에서 내쫓거나, 그가 죽으면, 그녀와 이혼한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 그녀와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눈에 가증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땅에 죄를 지으면,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혼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사회를 통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행사한 조정이었던 또 다른 전체 범주입니다. 그것은 신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적 양보였습니다. 이 텍스트의 진짜 내용은 그녀가 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친족 관계에 대한 이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남자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알고 있고, 그 후에 첫 번째 남자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친상간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례법이며, 하나님께서 성적 관계, 정액의 혼합, 결혼의 친족 문제와 관련하여 결혼의 성실성을 보호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혼법보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법이란 신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사회의 문제를 판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한 양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마태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100페이지의 노트에서 말했듯이, 이 구절은 실제로 재혼에 대한 판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혼을 입법화하지 않고 이미 알려진 관행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정경 문헌 어디에도 신명기 24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최소한 5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기에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견해는 신명기의 해석에 근거하여 장점이 있어야지, 종종 발생하는 강요된 신학 체계에 근거하여 장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신학자들이 견해를 제시하고 구약성경 자격을 갖춘 학자들이 함께하는 혼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자격을 갖춘 학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텍스트만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항상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먼저이고, 체계적 신학이 두 번째이며, 성경 신학과 관련하여 적절성과 관련하여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 노트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단에서 2a 다음에 들여쓰기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단을 읽고 싶습니다. 결혼의 유대감, 즉 한 몸은 두 번째 결혼을 함으로써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 결혼의 유대감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모세와 함께 여기 있는 시민 조직에서의 결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족 관계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가 있으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되고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재혼하는 것에 대해, 신명기 24장의 실제 금지 사항은 재혼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죽었더라도, 이는 보통 로마서 7장에서 해소를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매와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근친상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이 통제하는 사회의 일부였던 법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사실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 이스라엘과 통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혈통의 일부인 혈통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 특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통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를 인종간 결혼이나 인종간 결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문맥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내용이며, 이스라엘과 메시아 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불충실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갈비뼈라는 단어인데, 정말 희귀합니다. 그것은 소송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호세아의 책을 읽으면, 이 리브 패턴에 정말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즉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는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와 그의 백성 사이의 삶에 대한 비유로 실제 생활에서 무언가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마가와 누가의 진술이 있는데, 그것은 이혼의 근거가 없고 재혼도 없다는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 마가와 누가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주의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인 진술을 하며, 마가와 누가의 서사에서 예수는 창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설정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풀어낼 텍스트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서 그것이 처음에 있었던 방식이며, 그것이 지금도 있는 방식이며, 그것이 논의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엄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경우라면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매우, 매우, 매우 엄격한 해석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예외 조항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포르네이아(porneia )는 간통이나 성적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미국, 특히 이혼에 대한 견해의 핵심이 되었는데, 파트너 중 한 명이 사망, 버림,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의 근거가 되었고 , 사실상 이혼의 근거라면 재혼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들이 운영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너무나 가볍고 흔해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런 항목들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와 신명기에 대한 예수의 논평.

여기에는 두 페이지가 있을 수 있지만, 100페이지 하단과 101페이지 상단은 함께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4에 따르면 결혼 제도는 이상적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평생.

그것이 함축된 의미입니다.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결혼을 구성하고 그들은 아이를 낳고 등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이상이라는 문제는 후대의 가르침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문제는 문화적 양보입니다. 하느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을 제정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문화를 바꾸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통제합니다. 그런 다음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5장과 19장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래야 하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후에 그것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오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전형적인 견해가 아닌 다른 견해를 취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된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재혼의 이유이고 다른 것들은 이혼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성경은 이상을 가르칩니다.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결국 이혼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의 붕괴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이유와 변명, 심지어 학대와 성적 죄악,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는 패턴에 대한 문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현실이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타락과 누적된 죄악 사회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놓아두신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깨진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다룹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흥미로운 회복의 패턴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서와 다른 곳에서 리더십 역할은 특정 성적 죄가 저질러지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결과,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될 수 있지만 반드시 리더십 역할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신명기, 복음서, 특히 마태오 복음서를 이혼 문제에 대한 큰 메타 내러티브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7장은 배우자의 죽음이 재혼의 합법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결혼을 해소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다시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여자는 여전히 친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특별한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죽음이 결혼을 해소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힙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7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논의합니다. 다음 요점은, 제 개요에서 C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250페이지입니다.

개요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D만 살펴볼 것입니다. 해석의 역사에 대한 개요.

참고문헌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마지막에 있는 노트 10에 결혼과 이혼에 관해 찾아볼 수 있는 참고문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Heth and Wenham Jesus on Divorce가 출판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80년대에 출판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초창기부터 교부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Heth와 Wenham은 재혼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견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가장 잘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Heth and Wenham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 절판된 책일 겁니다.

그 책이 Lagos 같은 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작업하려면 그 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 노트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개요를 매우 따르는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개요는 다양한 해석자들이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학생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분석의 초점은 마태복음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매튜가 없었다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제안하게 된 견해는 매튜가 그의 공동체에서 특별한 하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튜의 예외는 성적 죄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맞고 다른 모든 것에도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상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의 역할을 다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메타서사입니다. 이제 주요 입장입니다. 입장의 개요와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Heth와 Wenham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판 날짜까지,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 출판이 이루어졌으므로 거기에 1~2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헌을 꽤 잘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제 참고문헌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일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기독교 학자 빌 헤스는 이 책을 쓴 후에 실제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초기 교회 관점으로 알려진 것을 취합니다. 그와 영문학자 웬햄은 이 책을 함께 썼습니다.

Wenham이 관여하면서 Heth의 논문이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Heth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려면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책을 쓸 당시, 제 노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좋아요. 초기 교회 관점의 정의.

다음은 Heth and Wenham의 정의입니다. 결혼의 유대감은 한 쪽이 죽을 때까지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보통 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다른 한 쪽은 헤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관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태의 예외를 성적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혼을 허용했지만 재혼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방향으로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말하는 버림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초기 교회 견해에 의해 주장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의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재혼의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재혼은 이혼 텍스트에서 나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혼 텍스트를 살펴봐야 한다. 이 관점은 보통 포르네이아를 결혼 관계를 위반하는 부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혼의 근거는 있지만 초기 교회 관점에 따르면 재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역사적 문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거의 2등 시민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 모임이나 앉을 특정 장소 등에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의 현재 문화처럼 이것에 미소를 짓거나 간과하거나 눈짓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근거는 있지만 재혼은 없습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글쎄요, 증거는 초기 교부들에게 있고, 당신은 초기 교회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그들을 계속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들의 목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Heth와 Wenham이 인용한 것의 샘플 목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Heth와 Wenham이 없다면 이 출처를 찾아서 초기 교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초기부터 이혼은 가능하지만 재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이혼은 성적 죄와 버림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초기 교회의 견해였습니다.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끈기 있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수백 년 동안, 아마도 13년에서 1400년 동안, 그것은 에라스무스 시대까지 지배적인 정교회 관점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우리에게 다음 변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의 견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일원이었던 존 머레이는 이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아마도 에라스무스적 견해 에 대한 가장 훌륭한 지속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제시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참고문헌에 많이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저널 기사도 이를 다룹니다. 에라스무스 관점의 정의.

에라스무스주의 라고 부르는데 , 로마 가톨릭 인도주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초기 교회 관점과 이 분야에서 로마 교회의 가혹함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삐걱거렸고 우리는 그것을 에라스무스주의 관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성적 불륜, 즉 마태복음 5장과 19장, 그리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여전히 초기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혼할 권리가 암시됩니다.

그래서 그는 재혼할 권리가 가르침의 함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라스무스가 기능했던 르네상스 인도주의 시대에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상황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많은 로마 가톨릭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로마 가톨릭과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제가 아는 한 파문당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뭐예요? 글쎄요, 여기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 관점은 16세기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4세기에 글을 쓴 암브로이아스터 이고, 헤스와 웬햄이 그것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다수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수는 확실히 초기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1466년부터 1536년까지 살았던 에라스무스는 상황을 뒤흔든다. 내가 여기 103페이지에서 말했듯이, 에라스무스는 계몽된 인본주의자이자 기독교 실용주의자였으며 로마 가톨릭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에 대한 글을 읽으면 아주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초기 교회의 관점이었을 교회법과 계몽주의의 원칙을 종합하고자 했습니다. 계몽주의에서 그는 이혼이나 재혼이 없다는 지배적인 관점을 잔인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심각한 결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해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오늘날처럼 우연히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이유로 교회 당국이나 공인된 판사가 특정 결혼을 해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무고한 당사자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에라스무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자선을 교회법, 즉 로마 교회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영역에서 인류에 대한 신의 은혜로운 대우에서 이를 주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라스무스적 관점 으로 알려진 창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J. 바튼 페인은 사망한 복음주의 학자인데, 사실, 그의 논문이었던 것 같지만, 그는 에라스무스에 대한 주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용해서, 에라스무스는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윤리적 상대주의자이자 문맥주의자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연법과 성경의 법의 본질인 사랑이 인간 행동에 대한 유일한 궁극적인 지침이며, 인간의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전통과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개신교 개혁가들은 실제로 에라스무스를 따라잡았고, 그들의 이혼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에라스무스의 사고 방식을 따르는 듯합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이 시기를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삶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1500년대 초반에서 중반은 어땠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은 교회에 못된 아들로 남았던 에라스무스와 교회를 떠난 루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로마 교회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던 다른 많은 주요 개혁 지도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1563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는 에라스무스가 죽은 후였을 것입니다.50년 전의 에라스무스를 반영한 개혁자들의 견해는 로마 교회에 의해 비난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없애지 못했습니다.개혁은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가져와 특히 재혼을 열었고, 어느 정도 이혼을 정당화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섹스와 버림을 넘어 다른 범주로도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부도덕과 버림을 근거로 삼고 재혼을 허용했습니다. 칼빈도, 저는 칼빈에 대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4E를 보세요. 칼빈의 전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습니다. 1600년대의 존 밀턴은 이혼의 교리와 규율이라는 그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1643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소집된 지 한 달 후, 그의 성명은 엄격한 견해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개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로마 가톨릭을 계몽주의와 종합하고자 했던 것처럼, 밀튼은 종교 개혁을 인본주의와 종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에라스무스주의적인 칼빈-베자 신학을 고수했습니다 .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이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에라스무스에서 종교 개혁자로 발전한 후 칼빈주의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방법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4D에서 말입니다.

이건 Heth and Wynnum의 4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책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개요를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Heth와 Wynnum은 세 가지 주요 변형을 논의합니다.

1. 간통과 버림은 이혼의 근거이며, 따라서 재혼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역사에서 주요 칼빈주의 인물이었던 존 머레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요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존 머레이와 머레이의 윤리와 이혼에 대한 견해는 미국의 침례교 전통과 성경 교회 전통 측면에서 주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전통과 물론 침례교와 성경 교회는 자신을 개신교로 보지 않지만, 미국의 개신교 전통의 대부분은 에라스무스 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자들에 의해 수정되고 전달되었으므로, 그들이 어떤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 이 에라스무스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부분이 자라면서 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다녔든, 저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고, 제 인생에서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2E. 포르네 아는 광범위한 죄를 의도하므로 근거가 넓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모든 종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죄의 버림의 기본 껍질이 함축을 통해 풀리고 있으며, 아마도 좋은 성경적 신학적 함축이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서 당신은 이것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3. 마태오 편집은 예수에게는 원래 없었던 예외 조항을 도입하여 교회 내에서 실용적인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변형이 있지만 항상 마태오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마태오가 없다면 대화도 없고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의 근거와 따라서 재혼의 근거 측면에서 갑옷에 균열을 준 사람은 마태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창조적 구성이지만, 그 측면에서 매우 함축적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다른 문제들. 에라스무스 전통의 핵심 문제는 무고한 당사자가 재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대부분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일 겁니다. 그리고 제 목회는 안수를 위해 6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목회에 5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마지막 10~15년, 어쩌면 20년을 제외하고, 이 에라스무스적 변형은 기독교계, 심지어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도 가정되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제가 60~70년대에 목사로 일할 때, 제가 주로 학교에 다닐 때, 어떤 때는 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 목회를 했을 때, 대부분 교회 헌법은 이혼 문제를 제시했고 에라스무스가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존 머레이로서, 존 머레이는 주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약 200명이 있는 시골 교회의 목회를 했고, 교회 위원회가 교회 헌법을 개발했는데, 거기에는 이혼에 대한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명을 썼을 때, 그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글쎄요, 수십 년이 지났고, 이 이사회 구성원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녀 중 일부와 결혼했고, 그 자녀 중 일부는 결국 이 이사회 구성원들과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이혼했을 때 자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족 갈등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사회 회의에서 그들은 저에게 이혼과 재혼 문제에 관해 우리의 헌법을 다시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들은 수명이 짧을 뿐입니다.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걸어다니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고 교사로 옮겨서 겨우 2, 3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끝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과 씨름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들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존 밀턴의 진술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게는 꽤 급진적이었습니다. 엄격한 견해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개혁.

에라스무스가 로마 가톨릭을 계몽주의와 종합하려 했던 것처럼, 밀턴은 종교개혁을 인본주의와 종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칼빈-베자 신학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라스무스 관점 의 현대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의 개혁, 개정된 종류의 입장이라고 가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 전통의 핵심 문제는 무고한 당사자가 재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 관점 의 상부 구조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 그것은 1980년대와 같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혼이 신명기 24장의 모자이크, 환멸에 찬 이혼이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점에서 신명기 24장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이 전체 프로테제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해입니다.

그게 시작 문장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9의 if 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이혼과 재혼을 모두 허용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언어의 주해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당사자의 결혼. 무고한 당사자. 곤란한 일이 생겼어.

부정의 경우. 두 번째 주장은 개혁가들이 법적 허구에서 발견한 재혼의 주해적 근거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나옵니다. 개혁자들을 통해 나옵니다. 간통한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적 허구.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 무고하지 않은 당사자를 죽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해소되고, 따라서 재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에라스무스적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아야 할 관점이죠. 그리고 숙제를 해야 해요.

하지만 Heth와 Wenham을 만나서 거기서 시작하면 숙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후에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학습의 세 가지 R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읽기, 읽기, 읽기. 그리고 연구, 연구, 연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 건전한 리더가 되려면, 몇 천 페이지 분량의 정보를 표면화하고 읽어서 문제를 걸러내야 합니다. 문제를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장단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해석자 커뮤니티가 그것과 관련하여 어디에 속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문화권에서는 교회에서 비연구적 독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 미안하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답게 또는 여자답게 행동하고, 바쁘게 일하고, 숙제를 하고, 이해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의 웅덩이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묘사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그것은 종종 일어나는 게으르고 핑계 같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주 적은 노력으로 표면화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세요. 숙제를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무지에 따라 사람들을 조종하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 범주적 관점, 불법적 결혼 관점, 이 범주는 porneia 의 특수한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 다. 마태복음에 대한 관점이 여섯 개나 일곱 개일지라도 실제로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 초기 교회는 이혼의 성적 근거 이지만 재혼의 근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견해는 이혼의 성적 근거이지만 재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마태복음 5장과 19장의 구절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적 견해입니다. 예외 조항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로, 단순한 성적 예외가 아니라 마태 공동체에 내재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와 누가는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마크와 루크는 이상에 대해 말하고 마태는 기계에 렌치를 던진다. 왜? 그리고 가정은 마태가 광범위한 일반론적 예외가 아닌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인 해석적 문제였고 그에 대한 제안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 있다.

105페이지 이하. 랍비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참고문헌을 제공했습니다.

pornea를 히브리어 zanot 과 동등하다고 이해하는데 , 이는 이혼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금지된 혈연 관계 내에서의 불법적인 결혼을 가리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과 레위기에서 발견되는 혈연 관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체액 혼합과 불법적인 결혼, 근친상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다른 작가들과 같은 길드에 속하지 않은 Ryrie조차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랍비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Fitzmeyer가 이것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랍비적이라고 부르는 건 약간 관대한 표현인데, 피츠마이어가 그것이 쿰란 두루마리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랍비적 전통 은 꽤 늦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랍비적 전통은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야 시작되었고, 미슈나와 탈무드는 글과 관련해서 4~5세기에야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랍비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존경받는 교사였지만, 랍비적 전통에 나중에 나타난 할랄과 샤마이 등과 성전이 파괴된 후인 서기 70년 이후에 나타난 랍비적 전통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혼에 대해 실제로 글을 쓰고 참고문헌에 있는 David Instone-Brewer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는 Mishnah에 대한 여러 권의 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rdman'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권에서 그의 서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랜드 래피즈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랍비에 대해 잘못 가르쳐서 오염되었다면, 권위자가 되고 있는 데이비드 인 스톤 브루어에서 숙제를 해야 합니다. 그는 미슈나와 랍비 전통에 관해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연결된 틴데일 하우스에 있으며, 제가 미슈나와 탈무드에서 알 수 있듯이 서기 70년 이전에는 랍비 전통이 없었다는 주장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랍비라는 단어가 있지만, 랍비는 교사를 의미하고, 신약성서는 랍비 전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미슈나와 탈무드입니다. 1세기에 구전으로 전해진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4세기와 5세기의 기록 문서에서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결 고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박사 학위의 전 분야입니다.

가정을 통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와 랍비 학문에 대해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정 환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Fitzmeyer는 105페이지에서 이 텍스트에서 다마스커스 문서에서 친족 관계에 따른 결혼의 명확한 사례가 있다고 인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레위기 18장에서 규정한 친족 관계를 Zunut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구약에서 Zunut은 창녀짓과 우상 숭배적 불륜을 모두 나타냅니다.

포르네 아로 번역되었습니다 . 이제 연결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Zunut이라는 단어의 뉘앙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든, 다마스커스 문서를 만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단어가 더 구체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서 일부다처제, 이혼, 금지된 친족 관계 내에서의 재혼이 히브리어 Zunut 으로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

따라서 다마스쿠스 문서에서 우리는 금지된 친족 관계 내에서의 결혼이나 신명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근친상간 결혼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주누트 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대한 누락된 연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츠마이어가 쓴 마태오의 이혼 본문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 피츠마이어 는 또한 고린도전서에 대한 앵커 성경 주석을 쓴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랍비적 관점은 마태오의 이혼 본문과 관련하여 주요 학술적 관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관점은 학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에라스무스 관점, 심지어 종교 개혁 개정조차도 최고 수준의 학문적 학문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족 관점의 이 금지된 측면은 학문적 관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라리가 실제로 혼인 간 견해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꾸란 자료와 랍비적 견해에 대해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변형일 수 있지만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여기서 포르네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통혼을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통혼 관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의 예외가 일반적인 성적 예외가 아니라 불법적인 통혼 문제에 대한 예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적 관점은 그것이 친족 재혼에 대한 이 내부 문제에 대한 예외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문적인 견해입니다. 또 다른 전문적인 견해는 약혼 견해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책은 아이작슨의 Marriage and Ministry in the New Temple입니다. 이 관점은 또한 Pornea를 일반적인 참고문헌이 아닌 전문적인 참고문헌으로 봅니다.

마태는 약혼한 여자가 성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혼의 관습과 법률에 익숙한 유대인 청중에게 편지를 썼고, 포르네아는 약혼 기간 동안의 성적 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식하여 이혼을 초래한 용어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요셉은 그녀를 내쫓을 뻔했는데, 이는 그 이야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기간은 결혼으로 여겨졌고, 법은 그것을 그렇게 취급했지만, 성적 성취는 실제 결혼식이 끝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제한된 관점에 대해 포르네아라는 용어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인용했고,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혼 관점은 주요 관점입니다. 그레이스 브레드런 교단은 약혼 관점을 견지했고, 지금도 견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사실,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은 초창기에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주요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카탈로그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MDiv 프로그램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MDiv 프로그램은 안수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혼을 안수 자격 박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있었고, 학생과 교수로서 거의 20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카탈로그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삭제된 그 상황을 아주 친밀하게 이해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신약이 어디에서 계속되는지, 구약의 전통이 1세기에 현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이혼이나 재혼의 근거로 삼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스톤-브루어는 이혼과 재혼을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보는 제2성전 유대교의 이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톤-브루어를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없애던 시기에 나온 것이고, 저는 아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Enstone Brewer에 대해 그가 훌륭한 학자라는 것 외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적은 있지만 , Instone-Brewer를 따르기보다는 Fitzmeyer 의 Zanut 관점을 고수할 것입니다 . Instone-Brewer의 관점은 다른 대부분의 관점보다 더 큰 방식으로 이혼으로 가는 문을 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편리합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견해에 대한 요약 평가. 수정하고 싶습니다. 1A 초기 교회, 2A 에라스무스 , 3A 기타 모든 견해.

그러니까, 삼중 분할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A, 107페이지 맨 위에, 1A 초기 교회를 공급하고, 1A를 2A, 에라스무스 관점 으로 바꾸고 , 2A를 3A, 다른 모든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교회 관점을 취하거나, 에라스무스 관점을 취하거나, 또는 5~6가지 관점이 있는 세 번째 범주를 취하지만, 모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적 죄의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예외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마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결국 성경의 모든 이혼 텍스트는 이혼이 없고 재혼도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경은 제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이상을 가르칩니다.

이혼과 재혼은 매우 불안정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많은 은유가 고정되어 있으며,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혼과 재혼을 다루기 위한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을 주었고, 우리는 그 후에 그것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깨진 세상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우리는 깨진 세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진실을 인식하고, 진실에서 벗어났을 때 회개하고, 실제로는 회복 과정, 즉 용서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 과정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깨진 세상을 다룹니다. 그 회복은 그 특정 죄가 단순한 회복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 직책 등과 관련된 의미를 갖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터의 관점, 9a.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성경이 이상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렸을 때, 그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게 다야.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알았지? 그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그것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에라스무스적 사상이나 그 어떤 사상을 가져와서 문을 여는 절대적으로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도미니칼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결코 매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저에게는 귀가 먹먹해지는 침묵입니다. 그는 예수가 이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일부는 오늘날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많은 가르침 면에서 성경을 능가했기 때문에 별로 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상형이죠.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네 명의 생명, 오직 죽음만이 그 결합을 해체합니다.

재혼은 없어. 그게 이상적이야. 이제, 뭘 할까? 이제 잘 들어.

이상적이지 못한 세상 에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 글쎄요, 답은 당신이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리더십 분야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 마구잡이로 또는 관대하게가 아닌 명확하게 묘사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이고, 이 죄는 특히 실격이며,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성적 죄를 지은 사역 지도자들은 한두 달 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말 관대해서 6개월에서 1년을 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 큰 교회, 큰 예산, 높은 수입과 함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무죄를 받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이 특정 영역에서 성경이 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다하세요.

당신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고, 회중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지만, 리더십의 그 특별한 영역은 쉽게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인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화는 인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적인 구성으로 계속 나아가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경우라면, 총알을 물고 용서 속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때 그랬던 그 리더가 되는 것을 포기하세요. 이제,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글쎄요, 신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부르셨고,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글쎄요, 계속하세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자가 아니지만, 당신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한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이 상황에 빠진 주요 학자이고, 그 이후의 그의 행적은 리더십 역할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목사라기보다는 교사였습니다. 그는 학술 출판사와 다른 일들을 계속하면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를 내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실패의 총알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적어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절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그 실패의 심각성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작은 지역 사회로 이사했고, 내가 아는 한 일관된 기독교 생활을 했지만, 학자로서의 일을 계속했지만 고립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힘들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죄를 정당화한 다음 1년 만에 사역 리더십 역할로 돌아온 유명 목사들입니다.

글쎄, 그들은 그것에 대해 대답해야 할 거야. 나는 그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하고 있을 뿐이야. 이제, 재혼 문제야.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께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두 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이혼 문제에 대한 유일한 책으로 재혼 문제를 실제로 다루는 책은 Andrew Kornis입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그는 성공회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재혼에 대한 좋은 섹션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에 있고, 여기 107페이지 중간에 있는 제 노트에도 있습니다. Andrew Kornis, 읽어봐야 합니다. 게다가 Mark Strauss는 Zondervan에서 반론서를 편집했는데, 이혼 후 재혼에 대한 견해 책인데, 거기서 학자와 교파적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네 가지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재혼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 텍스트에 대한 숙제를 먼저 철저히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이치를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당신에게 제한된 이치를 말하고 나서는 넘어갈 겁니다. 당신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재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연구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갈라지다'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한 육체의 친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의 유대감은 무엇입니까? 한 육체의 의미를 추적하면 구약성서는 결혼을 두 사람이 친족이 되는 행위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의 친족 관계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의 원칙이 정의상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드는 것처럼, 결혼도 또한 죽음에 의해서만 해소되는 풀리지 않는 유대감을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정적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추적해 보세요.

용해성 문제 . 이제 우리는 암시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후 재혼은 간통이라는 예수의 명확한 진술을 우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할게요. 문헌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소위 법적 허구의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이혼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재혼을 포함하고, 그것은 파트너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허구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개혁가,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은 법적 허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파트너는 법적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요즘은 학대 등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미국 법원은 오늘날 이혼에 대해 부적합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혼의 합법성에서 무고한 당사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혈연 관계의 원칙이 정의상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결혼도 또한 죽음으로만 해소되는 풀리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법적 허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1번 문단의 마지막에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법적 허구. 머레이는 유효한 이혼이 해산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함축이 있고, 창조적인 구성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해석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해산 가능성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재혼이 핵심 본문에서 다루어졌습니까? 예외 구절, 특히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배치는 마태복음과 신약의 일반적인 문법적 패턴에 비추어 연구할 때, 그것은 선행하는 것을 치우는 것에 적용되고 뒤따르는 결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재혼과 함께 받아들이고 이혼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주장이 아닙니다.

이 독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즉, 재혼은 항상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이것의 법의학적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통이 영원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함축성을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실제로 다른 어떤 견해보다 문제를 다루는 데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상을 깨뜨리고, 당신은 그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것을 알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다루지만, 이 죄는 친족 관계 문제와 그것에 기반한 너무 많은 은유 때문에 다루기 어려워서 매우 특별합니다.

이 의견은 반드시 영구적인 간통을 의미하지 않는 법의학적 필수 사항입니다. 적용, 철학, 성경적 데이터. 이혼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독서와 연구입니다. 다행히도 정말 집중적입니다. 매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버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질식시킬 만큼 충분한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찾아보세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기사를 인쇄하곤 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반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을 하지 못할 거야. 내가 그것을 하기 전에 죽을 거야. 그게 네 일이야.

영원한 문화적 문제는 우리가 신의 인생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관점을 강요할 것인지입니다. 어머, 우리는 이걸 완전히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잘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과거의 문서로 밀어내고 온갖 짓을 할 거예요.

내 생각에 유일하게 정당한 합리화는, 당신이 내가 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상을 가르친다는 관점을 취할 때, 당신의 합리화가 이제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이지 못한 세상을 다루고 있으며, 합리적인 구조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제 마음속에 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타락 신학이 그것을 다룬다는 사실은 실제로 초기 교회의 첫 번째 견해나 에라스무스의 모든 변형에 대한 견해, 심지어 현재 문화에서의 광범위한 확장보다 제가 그것을 다루는 시야를 엄청나게 열어줍니다.

저는 암시적이고 창조적인 구성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모두 이상에 대한 창조된 의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론적 성경 철학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회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심지어 신명기 24장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은 죄 많은 사회를 다루신다. 그는 신명기 24장의 이혼을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모세를 통해 근친상간을 명령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6장의 의미, 여러분 중 일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그가 관여한 세상 은 흥미진진합니다. 바울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는 지도자들을 임명해야 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게 반박할 수 있고, 이것은 기독교 이전, 기독교 이후,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바울이 성적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 임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고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회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그것은 암시적 창조 구조 영역의 일부입니다. 넷째, 신약성서 본문 안에 영감받은 발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을 또 다른 질문이지만, 문헌에서 제기될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넘어서 발전합니까? 그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둘째, 재혼이 유효한지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합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질문을 다룰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사역, 리더십, 그리고 노력입니다.

이것은 겁쟁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팔러 가세요. 당신은 그 이해에 응답했습니까? 당신이 있는 그대로 남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원칙이며, 이 질문에 제기될 특정 기준과 도덕적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개종 전과 개종 후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 대한 욕망입니다. 남자가 혼자가 아닌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깨진 결혼과 섹스에 대한 욕망, 그것을 동반자 관계라고 부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창조적 욕망의 일부이지만, 저는 우리의 초기 시절, 그리고 어쩌면 후기 시절에도 그것이 모두 섹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한 매력입니다.

성적 욕망은 창조적인 범주입니다. 신이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2a. 성경적 세계관에 참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세요.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숙제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에 훈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언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아니면 언어가 없다면 읽을 거리가 많고, 항상 당신보다 위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다루는 책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지나쳐갔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크게 짓밟았습니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순수함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 순수함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워 이 자료를 공부하게 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여러분에게 패러다임과 큰 그림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에게 리소스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제 개요를 통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Heth와 Wenham은 어느 정도까지는 큰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확장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목사라면 교회에서 안식년을 가져서 공부하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많은 숙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것을 할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수준에 있든 좋은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일요 학교를 가르치는 평신도이든, 교회 직원이든, 수석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니면 정말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크리스천이든, 숙제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Gary Meadors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고린도전서 7장, 성과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응, 성경과 이혼에 대한 여담입니다.